

국기방위의 중심군



육군

2026년 5월호 No. 486



MAY. 2026

이달의 이슈 절망의 시대, 희망을 일궈낸 '신홍무관학교' | 육군소식 ① 바다를 가르는 신뢰의 포성 화력대비태세로 수호하는 국민의 일상! | 육군소식 ② 보이지 않는 적, 대량살상무기와와의 전투에서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전적 대응훈련 전개 | 육군소식 ③ 예술로 그리는 호국-안보, 국민과 군을 잇는 '호국문화 플랫폼' | **아이 리포트** 야전 부대 소식 | **아이위리어** 최정예 300 전투원 TOP ECHT팀 제9보병사단 공병대대 | **그날의 영웅들** 끊어진 선을 잇고, 사선을 넘다 | **아이 레전드 썰** 부대의 '눈'이자 '최종 병기' 육군 최정예 스나이퍼들을 만나다 | **미담, 쓰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 **Military + idea** 탄피 분실 걱정 끝! '장갑형 권총 탄피받이'로 한 번에 회수! | **육군이 지키는 강산** 찬란한 새벽빛, 내일을 노래하다 | **Making 육군** 봄의 리듬으로 전하는 응원, '아이플라-봄편' | **로카시프트** 미래 기동 플랫폼, 자율 무인 체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30년 후 전장의 해답을 찾아가다 | **안보로드** 서울 사수의 최전선, 자유와 평화의 이정표 | **아이콘텐츠** [등용문 시즌3] The Standard : 기준이 되는 사람들 / [호시탐탐] 전출 보내주세요 | **아이오브북스** '새로운 질서 - AI 이후의 생존 전략'

절망의 시대, 희망을 일궈낸 '신흥무관학교'



낮에는 농사와 군사훈련을 하고, 밤에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무명의 독립군들. 출처: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국권을 잃은 시대, 짙은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을 준비했다.
1911년 만주 서간도에서 시작된 신흥강습소는
1919년 5월 3일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며 독립군 양성의 중심이 되었다.
이곳은 망국의 현실 앞에서 청년들에게 조국 수복의 의지를 심고,
행동하는 독립군으로 길러낸 배움의 터전이자 구국의 보루였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 훈련은 멈추지 않았고,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단련된 정신은 훗날 항일무장투쟁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날 신흥무관학교를 되새기는 것은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군이 어떤 사명과 책임을 지녀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세우고 뜻을 모아 끝내 준비를 완성할 때,
비로소 국가를 지킬 역량이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신흥무관학교의 역사는 분명하게 응변하고 있다.

CONTENTS

COVER STORY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장병들이 육군 MV [아미플리-봄편]에 참여하고 있다.
※ 육군은 분기별로 음악을 선정해 MV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표지_ 최녕은 일러스트레이터

발행일
2026년 5월(통권 제486호)
발간등록번호
11-9840001-100033-06(국가기록인)
발행
육군본부
편집기획
정훈실 미디어소통과 042-550-6574
인쇄
국방출판지원단 042-553-4505
디자인
(주)부운디자인 042-255-6225
홈페이지
www.army.mil.kr

승리하는 육군

- 04 육군소식 ①**
바다를 가르는 신뢰의 포성
화력대비태세로 수호하는 국민의 일상!
- 06 육군소식 ②**
보이지 않는 적, 대량살상무기와와의 전투에서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전적 대응훈련 전개
- 08 육군소식 ③**
예술로 그리는 호국·안보,
국민과 군을 잇는 '호국문화 플랫폼'
- 10 아미 리포트**
- 14 아미워리어**
최정예 300 전투원 TOP EHCT팀
제9보병사단 공병대대

자랑스러운 육군

- 16 그날의 영웅들**
꿰어진 선을 잇고, 사선을 넘다
- 20 아미 레전드 썰**
부대의 '눈'이자 '최종 병기'
육군 최정예 스나이퍼들을 만나다
- 24 미담, 쓰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 26 Military + idea**
탄피 분실 걱정 끝!
'장갑형 권총 탄피받이'로 한 번에 회수!
- 28 육군이 지키는 강산**
찬란한 새벽빛, 내일을 노래하다

공감하는 육군

- 30 Making 육군**
봄의 리듬으로 전하는 응원, '아미플리-봄편'
- 32 로카시프트**
미래 기동 플랫폼, 자율 무인 체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30년 후 전장의 해답을 찾아가다
- 34 안보로드**
서울 사수의 최전선, 자유와 평화의 이정표
- 36 아미콘텐츠**
[등용문 시즌3] The Standard : 기준이 되는 사람들
[호시탐탐] 전출 보내주세요
- 38 아미오브복스**
『새로운 질서 - AI 이후의 생존 전략』
- 40 예비역 광장**
- 42 독자의견**

바다를 가르는 신뢰의 포성 화력대비태세로 수호하는 국민의 일상!

육군 제22보병사단 2026년 첫 해상 포탄사격 훈련

강원도 고성군 일대 해안선 위로 대한민국 최북단을 수호하는 강철 의지가 울려 퍼졌다. 지난 3월 25일, 육군 제22보병사단이 실시한 해상 포탄사격 훈련은 압도적인 화력 운용 능력을 통해 실전적 대비태세를 입증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소음측정 활동을 병행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육군'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글 | 송지유 작가 사진 | 중위 주현욱, 김병문 기자(국방일보)



실전적 화력 운용으로 입증한 무결점 대비태세

3월 25일 아침, 강원도 고성군 해안가 사격장을 감싸던 안개가 걷히자 40여 문의 자주포가 위용을 드러냈다. “준비! 썩!” 단호한 명령과 동시에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져 나왔고,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과 함께 해상 표적 지점에는 거대한 물기둥이 연달아 솟구쳤다.

이번 훈련은 동해 최북단 접적 지역을 책임지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소음측정을 위해 실시한 올해 첫 해상 포탄사격이다.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 훈련으로, 육군 안보결의 주간과 연계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사단 예하 포병여단과 포병대대 장병 300여 명이 참가했다. K9A1과 K55A1 155mm 자주포를

비롯해 K105A1 차륜형 자주포 등 40여 문의 화력 자산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정보자산이 더해지며, 표적 탐지부터 사격, 탄착 확인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실전적 운용체계가 구현됐다.

훈련은 관측반의 표적 좌표 보고로 시작했다. 사격 지휘소가 이를 분석해 산출한 제원이 포반에 하달되자, K55A1 자주포들은 일사불란하게 방렬을 마쳤다. 먼저 ‘수정탄 사격’으로 탄착을 확인한 뒤, 각개포 및 포별 지명사격으로 정밀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어 ‘효력사격’ 단계에 돌입하자 모든 화력이 집중되며 해상 표적은 완전히 제압됐다. 특히 K105A1 차륜형 자주포는 짧은 사거리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여 다각적인 화력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금강산여단 포병대대 김윤상 상병은 “이번 훈련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 이었고, 반복 숙달과 철저한 준비가 결국 정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총 500여 발의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는 동안 장병들은 제원 확인, 장전, 발사 절차를 반복하며 숙달된 움직임이 이어갔다. 훈련 중 발생한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절차에 따라 즉각 대응해 사격을 이어가며, 실전적 교육훈련이 현장에서 그대로 발휘됐음을 보여주었다.

안전과 상생의 가치 위에서 완성된 훈련

사단은 이번 훈련의 성공만큼이나 ‘안전’과 ‘주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사격 전 ‘안전통제 세미나’와 시범식 교육을 통해 해상사격 특유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은 해상 사격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훈련에 임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철저히 이루어졌다. 사격 전 안전문자 발송과 안내방송, 항행경보 발령을 실시했고, 사격 당일에는 주요 항구와 유관기관 등 9개 거점에 현장 활동팀을 배치했다. 해양경찰과의 협조 아래 해상 선박 통제도 병행됐다. 또한 부대는 ‘명파리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훈

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주민 생활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측정반’ 운용이다. 주민 생활권 인근에서 구경과 장악에 따른 소음을 정밀 측정했으며, 향후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십자성포병대대장 박치범 중령은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반복 확인과 교차 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사격 능력 향상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훈련을 지휘한 정영훈 포병여단장도 “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군이 서로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비태세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앞선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로 자리할 것이다.

01
K9A1 자주포가 사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02
K55A1 자주포가 해상 표적을 향해 막강한 화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 대량살상무기와의 전투에서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전적 대응훈련 전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한미 연합 CWMD 훈련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4박 5일간 경기 북부 일대에서 한미 연합 CWMD(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장병들은 실전적 훈련 상황 아래 핵·화생방 위협 등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며, 팀워크를 강화했다.

글 | 이지연 작가 사진 | 대위 이정민, 조용학 기자(국방일보)



한미 장병, 따로 또 같이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2026 한미 연합 CWMD 훈련 첫 날, 수기사 돌진대대(기보대대), 공병대대, 화생방대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화생방부대 등 한미 장병 31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에는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77 전투지휘장갑차, K216A1 화생방정찰차, K10 제독차 등 기동·화생방·공병 전력 40여 대가 투입됐으며 핵·화생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탐지부터 차단, 제독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며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했다. 훈련은 수기사 돌진대대를 중심으로 공병·화생방대

대와 미 화생방부대를 편조한 한미 연합 CWMD-TF가 적 대량살상무기 의심시설을 발견하면서 본격화됐다. CWMD-TF는 의심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보 획득 후 건물 내부로의 진입 계획을 수립, 동시에 연합지휘소에서는 추가적인 전력지원 여부를 판단했다.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소형전술차량이 자욱한 연막을 뚫고 기동하는 모습이 실전을 방불케 했다. 핵·화생방 위협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훈련의 핵심 작전은 '적 대량살상무기 의심시설 탐지'였다. 적 대량살상무기 의심시설에 다다른 장병들은 '임무형보호태세(MOPP) 4단계'가 적용되자 신속히 방독면

을 착용한 채 작전을 이어갔다. 한미 장병들은 먼저 대향군을 식별, 치열한 교전 끝에 그들을 고착시켰고, 적 화학생산 의심시설 일대를 포위하는 동시에 추가 대향군 위치를 파악했다. 이어 투입된 1개 중대가 적 시설 내부로 진입, 남아 있는 적을 소탕하고 연구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돌진대대 장병들이 미로처럼 얽힌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고 잔적을 소탕하자 미군 장병들이 생화학무기 탐지 장비를 이용해 화학물질을 탐색하고 분석했다.

공병대대 장병들은 지뢰탐지기, 원격무선폭파기구 등을 활용해 진입로에 설치된 급조폭발물과 장애물을 식별, 신속하고 정밀·정확하게 제거하며 통로를 개척해 나갔다. 공병대대의 진입로 확보 후, WMD 시설에 대한 탐색·분석이 진행됐고 미 화생방대대가 간이 제독소를 설치, 작전에 투입됐던 인체와 장비에 대한 제독작전을 펼쳤다. 수기사 화생방대대 장병들도 K216A1 화생방정찰차와 K10 제독차 등을 활용해 제독에 나섰다. 한미 장병들은 눈에 보이는 대향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화학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실전 생존 능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보이는 적부터 보이지 않는 적까지! 완전 소탕!

따스한 봄 기운에도 한미 장병들은 실전과 같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각자 주어진 임무를 신속하고 은밀하게 완수했다.

돌진대대 부소대장으로 의심시설 외곽 확보 임무를 맡은 이건우 중사는 현장 병력 통제와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훈련에 임했다. "장병들의 개인 전투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라는 그는 "대향군과의 근접전투가 예상되는 만큼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기도비닉(소리·불빛·냄새 등으로 적에게 들리지 않게 은밀히 엄폐하며 움직이는 것)을 유지한 채 완수 신호를 익히는 등 행동절차를 반복 숙달했다."라고 설명했다.

"훈련 간 임무형보호태세 4단계가 적용돼 방독면을 비롯한 보호의, 보호 장갑, 전투화 덮개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독면 안을 가득 채웠지만 사전에 준비한 대로 절제된 수신호 등을 통해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임무 완수를 위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훈련간 중대 전투지휘를 맡은 조정제 중대장(대위)은 적 의심시설 확보 및 내부 진입 등을 주도하며 연합부대와 유기적 협조 아래 초기 임무 완수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 건물 확보 과정에서 임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해 피해 병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실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조정제 대위는 부소대장에게 보고 받는 즉시 위치를 재조정했고, 예비 경로를 활용해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혼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 간 상호신뢰와 팀워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집결지 편성, 공격작전, 화생방 감시 및 정찰 등 전시 임무와 연계된 여러 과제를 수행하며 연합작전 절차를 숙달했다. 특히 훈련간 마일즈 장비 활용 쌍방 교전, 복합 장애물 설치, CWMD 훈련 환경 조성, 대향군 운용 등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다. 더 나아가 야간에도 상호 전술토의와 장비 등을 공유하고 워게임, 사후검토 등을 실시하며 한미 장병 간 전술적 이해와 팀워크를 다졌다. 대량살상무기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 한미 장병들은 앞으로도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합작전 수행력을 지속해 키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01 수기사 중대장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화생방대대 장병과 WMD 의심시설 내부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02 내부 진입간 수기사 장병들이 위험요소를 확인 중에 있다.

제16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2026. 3.23. Mon - 6.18. Thu



예술로 그리는 호국·안보, 국민과 군을 잇는 '호국문화 플랫폼'

육군, 제16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작품 공모

육군과 국민을 잇는 특별한 예술의 장, '제16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한층 혁신적인 모습으로 찾아온다. 붓과 렌즈를 넘어 시까지 예술의 지평을 넓힌 이번 대전은, '호국'이라는 가치를 보다 다채로운 시선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한다. 특히 시아트 부문의 신설과 참여 대상의 글로벌 확대는 기술과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글 | 송지유 작가 사진 | 임동빈 주무관

시아트 부문 신설과 참여 대상 확대

미술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장병의 호국·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는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올해 16회째를 맞이한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호국미술대전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호국미술대전은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軍) 유일의 미술

공모전이다. 2017년부터는 대상(大賞)의 훈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며 전국 단위의 권위 있는 미술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장관 상장(최우수상)이 기존 6매에서 8매로 증가되고 특별상도 추가하여 더욱 풍성한 미술대전을 예고한다. 제16회 호국미술대전은 회화, 서예, 문인화 및 캘리



출품원서는 호국미술대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그래피, 디자인, 사진, 조소 분야에 시아트까지 총 7개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한다. 특히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시아트' 부문의 신설이다. 디지털 창작 환경과 기술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이 변화는, 예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창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작품 표현 방식의 폭도 넓어져 보다 친숙하게 호국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활용 여부와 기술과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게 하여 도구로서의 시와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심사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참가 대상 역시 대폭 확대됐다. 장병과 군무원, 국내 국민뿐 아니라 해외 재외동포와 외국인 동맹군까지 참여할 수 있어 '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참가자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호국'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시각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전차, 훈련 모습 등 다소 무겁고 직접적인 군사적 소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일상 속의 평화, 장병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미래 육군을 향한 상상력 등으로 주제가 훨씬 부드럽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을 기획한 문화운영장교 김헌배 중령은 호국미술대전이 국민들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호국의 의미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전시, 호국문화 플랫폼으로의 도약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심사는 미술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쳐 진행한다. 결과는 8월 중 육군본부와 후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병우수상에도 각각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영광의 수상작들은 9월 서울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부산·춘천·제주 등 전국 순회 전시로 이어진다. 올해는 청남대 등에서의 상시 전시를 통해 일상 속에서 호국 미술을 만날 기회도 대폭 늘렸다.

여기에 전시 방식의 혁신을 더했다. 바로 이동식 컨테이너 전시를 활용한 '찾아가는 전시'다. 기존의 중앙 집중형에서 벗어나 전방 격오지 부대와 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며, 이를 통해 장병과 가족, 지역 주민까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이를 통해 예술을 매개로 육군과 국민이 만나는 새로운 접점을 형성할 것이다.

호국미술대전은 앞으로 가상 전시관과 디지털 미술관 구축, 스마트 갤러리 도입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예술로 안보를 이야기하고 국민과 군이 공감하는 '호국문화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01 제15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김포애기봉생태공원 순회전시관 장병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02 제15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개막식 및 시상식 후 작품 관람하는 관객들

※ 자세한 내용은 육군본부 호국미술대전 홈페이지(<https://www.mp.mil.kr/hoguk/index.do>)와 국방망(인트라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기갑여단

미 NTC 연합 소부대훈련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제5기갑여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중대급 TF가 미 캘리포니아주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펼쳐진 한미 연합 소부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군 장병 120여 명은 미 3기병연대 전투단과 함께 지형정찰, 위계임, 제병협동 리허설에 이어 주·야 전술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했다. 특히 드론 위협 상황을 반영한 대드론 사격, 분산기동, 지휘소 분산배치 절차를 집중 숙달하며 미래 전장 대응능력과 연합 전투수행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글 | 소령 서민우 사진 | 대위 라정현, 대위(진) 정동영, 중사 오요섭

육군교육사령부

제2회 김범수상 시상식



육군교육사령부는 3월 23일 고 김범수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2회 김범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임관 3년 차 이내 초급장교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육군참모총장 표창과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수상 장교들은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조국 수호와 부대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교육사는 앞으로도 모범 초급장교 선발을 통해 군인정신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글 | 조재호 주무관 사진 | 이승훈 주무관

제8기동사단

한미연합 제병협동훈련



제8기동사단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영평훈련장과 작전지역 일대에서 드론을 활용한 한미연합 제병협동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장병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K2 전차, K21 장갑차, 박격포, 아파치 헬기 등 연합 전력 투입됐다. 훈련은 정찰드론으로 적 진지와 장애물을 식별한 뒤 한미 화력과 기동전력을 연계해 돌파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단은 드론 기반 표적식별, 피해판정, 장애물 개척 절차를 숙달하며 기계화부대의 연합 기동·생존·돌파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글 | 대위 황병현 사진 | 하사 이권

국제평화지원단

한빛부대 21진 환송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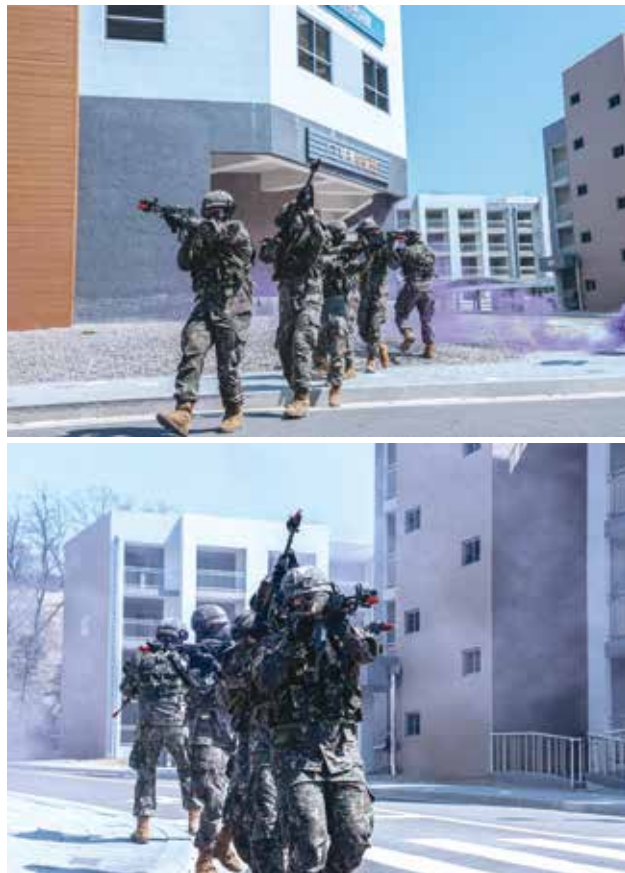


3월 31일,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부대 21진 환송식을 열고 성공적인 PKO 임무수행을 다짐했다. 장병 260여 명은 지난 2월 편성 이후 8주간 전술훈련과 주특기훈련, 현지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임무 역량을 높였다. 이번 21진에는 해외 파병 유경험자 64명과 현지 파병 연장자, 전역 연기 병사 등이 포함돼 임무 연속성을 높였다. 부대는 향후 8개월간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재건지원, 의료지원, 문화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글 | 소령 이호열 사진 | 상사 김관홍

제51보병사단

전반기 도시지역작전훈련



제51보병사단 철마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인천 도시 지역전투훈련장에서 전반기 도시지역작전훈련을 전개했다. 장병 230여 명은 근접전투(CQB) 기술과 도시지역 이동, 건물 내부 소탕, 지하시설 전투, 적 드론 회피 및 대공화망 사격 절차를 단계적으로 숙달했다. 종합훈련에서는 쌍방 교전을 통해 실전적인 상황 조치 능력과 팀 단위 전투기술을 점검했다. 여단은 도시화된 작전환경 특성을 반영한 전투기술 체계를 발전시키고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글 | 장행석 주무관 사진 | 대위 박주은

제2기갑여단

포탄 사격·진지변환 기동훈련



제2기갑여단 설악포병대대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포탄 사격 및 진지변환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장병 170여 명과 K55A1 자주포, K77 사격지휘장갑차 등 3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이번 훈련은 사격 이후 신속한 진지변환과 생존성 보장 절차 숙달에 중점을 뒀다. 부대는 표적 식별, 사격임무 접수, 효력사, 진지변환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반복 숙달했으며, 4주간의 예행연습과 지형정찰을 바탕으로 실전적 포병 기동 및 화력 지원 능력을 점검했다.

글 | 소령 성하준 사진 | 중위 최현식, 중위 이은우

제53보병사단

지·해·공 합동훈련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은 4월 8일 울산·경주 해안 일대에서 적 해안침투를 가정한 지·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여단과 항공단, 해군, 해경 등 8개 기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레이더와 TOD로 미상 표적을 탐지한 뒤 수리온, 마린온, 고속정, 해경 기동정을 연계한 수색·차단작전을 전개했다. 연안 접근 이후에는 박격포 조명사격과 개인·공용화기를 활용한 수색전 전투로 침투 세력을 격멸했다. 부대는 주민신고망과 연계한 후속 탐색까지 숙달하며 통합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글 | 김정호 주무관 사진 | 대위 김연욱

육군화생방학교

방사선 영상화 기술 전투실험



육군화생방학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방사선 영상화 장비의 기본 성능과 군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전투 실험을 실시했다. 이번 실험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군화생방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방사능 테러 대응 상황과 핵 공격 이후 낙진오염지역 탐지와 WMD제거작전 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정찰 절차를 실험했다. 특히 핵종과 방사선 세기를 하나의 장비로 탐지해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의 운용 가능성을 집중 검증했다. 화생방학교는 결과를 토대로 핵·WMD 대응을 위한 방사능 정찰 및 탐지체계 발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글·사진 | 소령 박희종



최정에 300 전투원
TOP EHCT팀

제9보병사단 공병대대

사진 | 조상철 작가

(좌측부터) 상병 윤성원, 상사(진) 명지현, 중사 구경민, 병장 전민준

끊어진 선을 잇고, 사선을 넘다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 안양시지회 신봉섭 용

전쟁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스무 살 청년이 향한 곳은 핏물이 흐르던 전장이었다. 무거운 통신선을 메고 산을 넘으며, 간장으로 허기를 달래고 전우의 죽음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시간들. 전장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증언하는 신봉섭 용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뿌리에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글 | 송지유 작가 | 사진 | 원정연 사무관

끊어진 다리, 무너진 일상

1950년 6월 25일 새벽, 갑작스러운 탱크 소리가 서울의 고요를 깨뜨렸다. 스무 살 청년 신봉섭(97세)의 일상도 그날을 기점으로 무너졌다. 신문 배달로 학비를 벌며 서울공업공업고등학교 전기과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청년에게 전쟁은 '학업' 대신 '생존'이라는 가혹한 숙제를 던졌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한강 다리가 끊기자 서울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원효로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는 하늘에는 전투기가, 땅 위에는 탱크가 뒤엉킨 풍경 속에서 서울에 그대로 있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어머니와 함께 나룻배에 몸을 실어 가까스로 한강을 건넌 그는, 시흥군 장곡리에 있던 큰외삼촌 댁에 도착했다.

“큰외삼촌 댁에 얹혀살며 새끼를 고고 가마니를 짰어요. 농사로 근근이 사는 집에 입 하나 보태는 게 미안해 뭐라도 하려 했지요. 그런데 왜 그리 늘 배가 고프던지요.”

9.28 수복 후 서울로 돌아왔지만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부푼 꿈은 꺾이고 말았다. 다리가 끊긴 탓에 한강 이북의 학생들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이어가야 했지만, 전기, 기계 등 공업고 학생들의 전공 수업

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던 까닭이다.

“어느날, 학교 게시판에 학도의용군 모집공고가 붙었어요. 공부도 못 할 바엔 나라를 지켜야겠다 싶어 어머니 몰래 부모님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지원서를 냈습니다. 모집장소인 용산고등학교에 가보니 500여 명이 모였는데, 체격조건이 미달되거나 너무 어린 사람들은 탈락했어요.”

출정일인 10월 20일, 뒤늦게 아들의 입대 소식을 듣고 용산고등학교로 달려와 통곡하는 어머니를 뒤로한 채 그는 군용 트럭에 올랐다. 멀어지는 트럭 뒤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하얀 옷자락은 평양으로 향하는 청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다.

통신선을 메고, 전장을 오르다

최종 선발된 341명의 학도병들은 군용 트럭 10대에 나눠 타고 평양으로 향했다.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채 교복 차림으로 마주친 평양의 10월은 혹독했다. 도착 첫날 어둠 속에서 떠 마신 물이 시신에서 흘러 나온 핏물이 섞인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전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학도병들은 육군 제7사단 18포병대대에 배속되었다. 전기과 전공자였던 신봉섭 용은 지휘소대 유선





01

통신병으로서 포진지와 관측소까지 통신선을 연결하는 임무를 맡았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무거운 전선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통신선을 설치해야 했다.

“당시 통신선이 철에 피복을 입힌 것이라 엄청 무거웠어요. 그런데 산꼭대기 목표 지점까지 통신선을 메고 올라가면, 상황이 변해서 더 멀리까지 연결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산 밑으로 내려가 선을 보충해서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했죠.” 전쟁 중이라 통신시설을 해야 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었고, 산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통신병들은 끼니를 거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수통에 물 대신 간장을 넣어 허기를 달래며 버텼다.

사선을 넘어, 죽음의 포위망을 뚫다

1950년 11월, 평안남도 덕천에 이르렀을 때 아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맞닥뜨렸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부대는 완전히 포위되고, 교량마저 끊겨 퇴로가 차단되었다. 상부에서는 포와 차량 등 장비를 파괴하고, 인원만 탈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포위망을 뚫고 이동하던 중, 다른 포대의 포대장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이미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더 못 간다. 너희들이라도 꼭 살아남아서 원수를 갚아 달라.’고 절규하는 그를 남겨둔 채,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죠.”

긴박한 상황에 전우를 가슴에 묻고 사선을 넘어야 했지만, 그 장면은 신봉섭 응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다.

“산을 넘기 위해 7부 능선쯤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포대장님이 기차가 다니던 철길을 찾아낸 거예요. 포대원이 모두 달라붙어 포와 차를 직접 밀고 끌며 그 철길을 건너 기적처럼 탈출했어요. 나중에 보니 다른 포대는 못 나오고 우리 브라보 포대만 모두 빠져나왔더군요.”

죽음의 포위망에서 장비를 지켜내며 탈출한 이들은 곧바로 9사단 지원 병력으로 차출되었다. 이후 부대는 8사단 50포병대대로 재편되어 전선에 투입됐다.

적진 한가운데, 혼자가 되다

1951년 가을,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던 강원도 양구의 백석산(1,142고지). 이등중사 신봉섭은 건뽕 두 봉지를 들고 통신선 연결 임무를 위해 백석산을 올랐다.

“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좋지 않은 예감에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자꾸 눈이 갔습니다. 결국 가랑앞에 덮인 시신을 발견한 순간, 머리카락이 하늘로 곳곳이 서는 것 같더군요.”

참혹한 광경이 눈에 새겨졌지만, 임무는 계속되어야 했다. 오직 통신선을 연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깊은 계곡과 높은 산을 뛰어 오르락내리락 했다. 중간에 끊어져 있던 통신선을 찾아 함께 움직이던 동료는 포진지 쪽으로 내려보내고, 그는 혼자 남아 관측소를 향해 더 올라갔다. 어떻게든 선을 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순간 갑자기 끊겼던 통신이 살아났다. 그리고 전선을 타고 포대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 중사 이 새끼야! 다 버리고 뛰어! 거기 적진이야!”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욕심에 자신도 모르게 적진 한복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공포에 휩싸여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거의 굴러 내려오듯 산을 빠져나왔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아군 진지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고



02

열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총탄보다 무서웠던 것은 적막한 산중에서 홀로 마주했던 죽음의 그림자였다. 이날의 경험은 전쟁 중 가장 깊은 공포로 남았다.

전우애로 버틴 전장,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

전쟁 중 지휘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도병들은 장교 시험 응시를 권유받았다. 시험에 합격한 신봉섭 응은 갑종장교후보생 교육을 거쳐 1953년 9월 소위로 임관했다. 1967년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

전역 후 안양에 정착한 그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장관 표창을 두 차례 수상했다. 퇴직 후에는 1998년부터 22년간 무려 3만 597시간의 봉사시간을 기록하며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오랜 시간 헌신하며 살아온 그의 삶을 지탱한 것은 전쟁 속에서 체득한 신념이었다.

“하면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전쟁이 남긴 것은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함께해야 살아남는다는 ‘전우애’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다.

“

그 참혹한 전장에서 전우애로 버틴 것처럼,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조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

“어린 학도병들이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전쟁을 너무도 쉽게 잊어가는 것 같아서 안보가 걱정입니다. 그 참혹한 전장에서 전우애로 버틴 것처럼,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조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장에서 쓰러져 간 전우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온 노병. 신봉섭 응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쓰러져 간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01 오랫동안 헌신하며 살아온 그의 삶을 지탱한 것은 “하면 된다.”는 신념이었다.

02 1953년 갑종간부후보생 보병 58기, 포병 40기 교육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했다.

03 1957년 아전병기교육 수료 후 교육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03

부대의 '눈'이자 '최종 병기' 육군 최정에 스나이퍼들을 만나다

육군 제39보병사단 기동대대 최정에 저격반

2022년 최정에 박격포팀, 2025년 최정에 기동팀을 배출한 제39보병사단 기동대대가 2025년 9월, 최정에 저격반까지 배출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특히 최정에 저격반의 경우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K-ISC)'에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전 군을 대표하는 전술사격 최고 강자로 인정받았다. 부대의 '눈'이자 '최종 병기'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발필중(一發必中)'의 각오로 임무수행 중인 육군 최고의 스나이퍼들을 만났다.

글 | 이지연 작가 사진 | 김승호 작가



세계 최정에 저격수를 선발하다

육군 제39보병사단 기동대대 최정에 저격반이 출전한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가 2025년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육군 특수전학교와 특수전사령부 비호여단 훈련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외국군 등 9개국 15개 팀을 포함, 총 52개 팀 149명이 참가해 연합·합동 차원의 저격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겨루는 자리였다. 대회는 부대유형 및 임무 특성에 따라 특전사·특공부대·해군·공군·해양경찰·외국군 등이 참가한 '레전드(Legend) 경기'와 보병여단·수색부대·군사경찰 등이 참가한 '스페셜리스트 경기', 분대급 저격수 병사팀으로 구성된 '워리어(Warrior) 경기'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레전드와 스페셜리스트 부문은 800~1,000m 거리의 임의표적을 타격하는 장애물 자세변환 및 장거리 사격, 600m 이내 이동형 로봇 표적을 사격하는 건물 내·외부 사격, 100~600m 거리의 임의표적을 제압하는 주·야간 정밀사격 및 헬기 모형 항공사격 등으로 진행됐다. 또 근거리 전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10~50m 이내 권총·소총 정밀사격과 저격수의 순발력과 속사능력 평가를 위해 회전표적을 타격하는 권총·소총 속사사격을 실시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정찰·공격 드론과 베테랑 특전대원들을 대항군으로 투입,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이어졌다. 39보병사단 기동대대 저격반을 대표해 대회에 참가한 권성민 상사와 이시훈 중사(진)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01 권성민 상사가 이시훈 중사(진)와 함께 저격수가 육상 점령 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토의하고 있다.



01

가지였다. 평소 실제 전장환경을 고려한 상황부여식 훈련과 팀 단위 전술 숙달을 통해 어떠한 작전 상황에서도 신속·정확하게 임무완수할 수 있도록 전투 수행능력을 배양해온 것이 스페셜리스트 부문 1위를 거머쥔 비결이었다.

“기동대대 저격수반에는 10여 명의 저격수들이 임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대회는 규정상 코치 1인, 저격수 2인 총 3명이 한 팀을 이뤄 참가했습니다. 코치는 경기 진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활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저격수들은 사수·관측수 임무 모두를 수행합니다. 정교한 사격능력은 물론 거리, 바람, 기온 등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능력을 기본으로 팀워크를 발휘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격반 반장인 권성민 상사는 대회를 대비해 장거리·정밀사격과 주·야간사격, 이동·속사사격 등 다양한 전술사격 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산악과 도심이 혼재된 한반도 작전환경을 반영한 장애물 활용 사격, 스트레스 상황하 사격 훈련을 집중 실시해 제한된 시간과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갔다.

혹독한 훈련 속에 거머쥔 최고의 영예

2013년 임관해 201특공여단, JSA경비대대 등에서 임무수행한 권성민 상사는 2021년 39보병사단 기동대대로 왔고, 이듬해 1월부터 저격수 임무를 수행 중이다. 2022년부터 최고의 스나이퍼가 되기 위해 도전을 시작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는 권 상사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갔고 2025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전한 대회에서 1위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체력단련으로 하루를 시작해 근접전투 사격훈련, 저격수 사격훈련을 야간까지 이어갔습니다. 실탄을 격발하지 않는 '비사격 훈련'을 통해 보다 빠른 사격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숙달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이른 아침부터 야간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스케줄을 부대원 모두 지켜봤기에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에서 1위를 했을 때

모두 내 일처럼 축하해주었습니다. 치열한 노력을 결과로 증명했을 때 느낀 전율이 평생의 자부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39보병사단 기동대대는 경남 지역의 핵심 기동타격대로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기동력과 화력을 갖추고 있다. 2021년 12월, 병사로 입대해 박격포반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시훈 중사(진)는 용사 복무 시절, 2022년 최정에 박격포 부문에 입상하는 경험을 쌓았다. 그것을 계기로 육군의 중추인 부사관의 꿈을 키우게 됐고 2023년 6월 임관했다. 현재 저격조장으로 임무수행 중인 이시훈 중사(진)는 테러 상황에서의 초동조치부대 저격수 역할 및 국지도발 상황에서의 공중저격수 임무 등을 수행 중이다.

“저격수는 다재다능하고 전투기술에 능통해야 하기에 위장, 이동기술, 사격술 등을 숙달해야 합니다. 가



02



03



04

“ 치열한 노력을 결과로 증명했을 때 느낀 전율이 평생의 자부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장 중요시하는 교육 역시 주특기 교육입니다. 탄탄한 기본기에 전술사격 실력을 겸비한다면 저격수의 필수조건인 ‘일발필중’ 실력을 갖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

작은 조준경 너머로 보이는 미세한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고, 상황을 신속히 판단해 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권성민 상사는 일부러 훈련 상황을 실전처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훈련이 가혹할 만큼 혹독했다.”라는 게 권 상사의 표현이다. 최정에 저격수팀은 달리기와 스쿼트로 온몸의 힘을 다 뺀 ‘극한의 피로상태’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했고, 사격 순간에는 실제 전장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훈련에 돌입했다. 물, 식량 등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전장에 남은 저격수의 몸과 정신 상태는 어떠할지, 과연 극한의 상황에서 원샷 원킬로 적을 쓰러트리고 아군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접목한 훈련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이시훈 중사(진)가 지켜 쓰러지기도 했지만 두 사람에게 포기란 없었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무서울 만큼 냉정했습니다. 이시훈 중사(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단 한 번의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과 타협하지 않는 냉정함, 그것이 저격수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격수의 피에는 냉정함이 서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권성민 상사의 생각이다. 실제로 저격수는 백발백중 사격도 잘해야 하지만 사격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심리 상태’다. 목표물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피로 속에서도 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해 내는 고도의 집중력을 갖춰야 한다.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가져 심박수를 낮게 유지해야만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 또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는 찰나의 순간, 몸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근지구력과 안정성도 요구된다. 저격수가 갖춰야 할 정신적, 신체적 요건은 지루하리만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완성된다.

“최고의 저격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도전했는데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권성민 상사의 가르침을 받아



05

02 반대편 건물 내부에 있는 표적을 조준하는 권성민 상사와 바람방향과 사거리를 측정하는 이시훈 중사(진)

03 표적에 근접한 지점까지 은밀 침투 후 식별된 적의 움직임을 가리키고 있는 권성민 상사와 적을 찾고 있는 이시훈 중사(진)

04 장거리사격을 위해 바람방향, 사거리를 판단하고 사격을 통제하는 권성민 상사와 정밀한 사격을 준비하는 이시훈 중사(진)

05, 06 훈련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39보병사단 기동대대 저격반 대원들

기본기를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체력, 사격술, 탄도학 등을 공부해 저격수로서의 기본기를 습득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사격술과 위기 대처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사격방식 중 ‘스트레스 상황하 사격’이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뛰어와서 바로 표적을 찾고, 사격하는 훈련입니다. 실제 전장에서의 상황과 제일 유사하게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데 한여름, 장구류 및 군장을 갖춘 상태로 오르막을 뛰어올라 사격연습을 했을 때 그만 체력이 달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훈련을 매진했던 만큼 훈장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



06

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잘 이겨낸 덕분에 모두가 인정하는 육군 최고의 스나이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다. 권성민 상사와 이시훈 중사(진)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극강의 팀워크를 발휘했다.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격반 최민혁 중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고 지원해준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팀을 이뤄 대회에 출전한 이시훈 중사(진)에게도 그때 다하지 못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이시훈 중사(진)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버텨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저격수경연대회 스페셜리스트 1위를 달성한 두 사람은 2026년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미특수전 국제저격수대회 출전권을 따낸 만큼 국제 무대에서도 최고의 저격능력과 전투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전력 발전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정에 저격팀으로 황금베레모를 거머쥔 권성민 상사와 이시훈 중사(진). 두 사람은 황금베레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한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공부해 39보병사단 저격반이 육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정진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30년간 정기후원 이어오며 이웃사랑 실천한
육군 제2기갑여단 적오대대 원사 임용택



‘베짱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내 주머니가 가득 차 돈이 흘러 넘쳐도 나눌 줄 모르는 이가 있고, 달랑 하나 남은 동전마저도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 부사관이 된 후 시작한 정기후원을 30년간 이어오며 국내외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는 육군 제2기갑여단 적오대대 임용택 원사는 나누며 살아가는 실천적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글 | 이지연 작가 사진 | 소령 성하준

임용택 원사는 1994년 3월 병사로 입대해 9보병사단 백마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 지금까지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20여 년을 백마부대에서 근무한 뒤 2014년 9월, 2기갑여단으로 전입한 그는 현재 통일로 호랑이 2기갑여단 적오대대에서 구난후송반장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적오대대는 여단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비·수송·의무지원 등 통합지원을 하는 부대로, 여단 전투력 유지의 핵심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임용택 원사는 군인으로서 전투력 발휘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강한 정신’과 ‘체력’이라는 생각에 자기관리도 철저히 했다. 체력단련을 끝마치는 것이 반복된 일과의 마무리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전 매일 일기를 쓰며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 왔다.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책을 읽는다는 임 원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굳건히 다져온 사람이다.

1995년 12월, 부사관으로 임관한 임용택 원사는 부대에서 보급받은 『좋은 생각』에서 글로벌 NGO 단체의 후원 안내를 접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작은 용기와 힘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후원을 신청했고, 1996년 3월 10일 월급날 자동이체를 통해 정기후원을 시작했다. 1997년 12월 중사 진급을 시작으로 상사, 원사로 진급할 때마다 후원 액수도 함께 늘려 갔다. 액수를 줄이거나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자신이 돕고 있던 아이들에게 마음의 빛을 지는 것 같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다.

“2003년 12월 상사 진급 후 결혼해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전셋집에서 아내, 두 딸과 함께 근검절약하며 성실히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 월급으로 가족 모두가 생활하다 보니 정기후원을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군인의 한사람으로서 이웃사랑 실천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는데 주위에서 칭찬해 주시니 쑥스럽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을 응원해 온 시간이 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줄 때가 많았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후원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감사했다는 손편지를 보내올 때면, 오히려 제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재산의 10%를 꾸준히 기부하고 후원하며 누구보다 큰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꼈다. 또 아프리카 후원 아동의 이야기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그의 후원으로 말과 소를 마련한 한 소년이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됐고, 경제적 여유도 생겼다. 아프리카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를 보내온 소년의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대학생 큰딸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2024년부터 정기후원을 시작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딸의 롤모델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체력단련 시간을 활용해 10km를 달리고 있다. 해마다 봄, 가을 시즌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고, 특급전사 달성을 목표로 체력단련을 이어오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좋아하는 운동은 ‘새로운 기부’의 기록제가 됐다. 2016년, 2018년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해 받은 상금 80만 원에 자비 20만 원을 더해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대회 우승 다음 날 마라톤 풀코스를 뛴 만큼 운동을 좋아하는 그는 “우승 상금을 값어치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함께 대회를 뛴 민간인 후배의 지지로 이를 실천할 수 있었다.

임 원사는 2020년 감사 나눔 및 이웃사랑 실천의 공을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광개토사’에 선정됐다. 선행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빛으로 새어나와 주변을 밝히는 법이다.

“군 생활 동안 ‘매사에 감사하라, 현실을 즐겨라,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유년 시절, 가난한 강촌에서 태어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제게 준 사랑과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1군단에서 ‘자랑스러운 광개토사’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고, 여단에서도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임용택 원사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눔과 이웃사랑이 자신의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고 고백했다. 군에 입대한 지 32년.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정성껏 키운 두 자녀도 성인이 됐다. 푸른 청춘과 젊은 기상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이었기에 벅찬 마음이 더 크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 그리고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남은 군 생활도 지금까지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하나를 선뜻 내어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나가 생기면 더 좋은 하나를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진 세상이다. 그럴수록 임용택 원사의 따뜻한 이타심과 선행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작용할 것이다.



탄피 분실 걱정 끝! '장갑형 권총 탄피받이'로 한 번에 회수!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53군수지원단 일벌부대
총포정비반장 고승열 주무관

사격장의 총성 뒤에는 늘 과제가 뒤따른다. 바로 탄피 회수다. 작고 가벼운 권총 탄피는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고, 풀숲이나 구조물 틈으로 숨어들면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비효율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고승열 주무관은 6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쏟아부었고, 마침내 사수의 손에 직접 착용하는 '장갑형 권총 탄피받이'라는 새로운 해답을 제시했다.

글 | 송지유 작가 사진 | 중위 민태홍

현장의 불편함, 발상의 전환으로 바꾸다

사격이 끝난 뒤, 흩어진 탄피를 찾는 일은 사격장의 익숙한 풍경이다. 총포 정비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고승열 주무관 역시 이 문제를 수없이 경험했다. 특히 2018년, 교육사령부 사격장에서 경험은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다.

“날아간 탄피가 하필 차양대 처마 밑 좁은 틈새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다리도 없어 동료의 목마를 타고 처마 밑을 한참이나 더듬어야 했죠. 그때 탄피가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권총 탄피받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초기에는 기존 방식처럼 총기에 부착하는 형태를 시도했다. 버전 1은 방아쇠 윗에 결합하는 구조였고, 버전 2는 활대에 부착하는 방식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사격 반동에 의해 탄피받이가 분리되거나, 무게 중심이 쏠려 명중률에 영향을 주었으며 조준선 정렬을 방해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정체기에 빠져있던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웨어러블 기기'였다.

“총이 아니라 사람 몸에 착용하면 어떨까?”

발상의 전환은 곧 사수가 장갑처럼 착용하고, 손등에 부착된 주머니가 탄피를 받아내는 '장갑형 탄피받이' 형태로 구체화됐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탄피의 비행 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수많은 영상을 반복해 확인했고, 사격 장면을 직접 관찰하며 최적의 각도를 찾아갔다.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는 계속됐다. 분재용 철사로 프레임을 만들고,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로 무게를 줄이며 구조를 잡았다. 바느질로 마감을 시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결국 글루건으로 고정하여 시제품을 완성했다. 수십 차례의 재제작과 실패, 그 지난한 과정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의 존재는 큰 힘이 되었다.

6년의 분투, 집념으로 빛어낸 다섯 번째 특허

솔한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장갑형 권총 탄피받이'는 기존 장비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지녔다. 탄피의 배출 방향을 고려한 개구부 설계는 사격 중 발생하는 탄피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전방 지퍼 구조를 통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장갑 형태이기 때문에 사격 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장비를 분리할 필요 없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총기의 무게 중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장점이다. 사수의 조준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사격을 유지할 수 있어, 실사용 환경에서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보조 장비를 넘어 사격의 흐름 자체를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01 3D프린터 모델링을 상의하고 있는 고승열 주무관과 최민관 주무관
02 솔한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장갑형 권총 탄피받이'

2024년, 이 발명은 고승열 주무관에게 다섯 번째 특허라는 영광을 안겨주었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등록까지 걸린 시간은 6년. 긴 시간 동안의 연구와 도전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미 '복합형 크레모아 격발기', '유탄발사기용 영점 조준 장치' 등 5건의 특허 등록과 공무원 직무발명 신고·지식재산권 승계 15건 등을 보유한 발명의 달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현재도 장갑형 탄피받이의 군 적용을 위해 소요 반영과 생산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3D 프린터를 활용한 정비 공구와 안전 장비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특허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 작은 재능이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승열 주무관의 시선은 늘 현장과 장병들의 안전을 향하고 있다. 현장의 불편함에서 출발한 문제의식과 반복된 도전은 실질적인 해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는 우리 군의 안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나아가 K-방산의 미래를 지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찬란한 새벽빛, 내일을 노래하다

촬영장소 | 동부전선 사진 | 김송호 작가



봄의 리듬으로 전하는 응원, '아미플리-봄편'



육군 SNS 콘텐츠 '아미플리'는 음악을 통해 장병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활력을 더하는 시리즈다. 군악대와 협업으로 완성되는 아미플리는 계절의 분위기와 그 시기의 정서를 담아내며, 육군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번에 소개될 '아미플리-봄편'은 청춘의 한 페이지를 지나는 장병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짧지만 진심 어린 한 편의 뮤직비디오로, 병영 속 청춘에게 봄의 기운과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

글 | 원정연 사무관 사진 | 고남희 작가

이번 '아미플리-봄편' 콘텐츠는 세븐틴의 '청춘찬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어려움이 있어도 청춘이기에 결국 잘 해낼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이 곡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자연스러운 울림을 전한다. 단지 노래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영상, 그리고 군악대의 합주가 어우러진 장면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청춘의 에너지를 함께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출연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밴드가 맡았다. 보컬을 맡은 김유겸 상병(GOT7 소속)과 김정우 일병(NCT127 소속)은 익숙한 합주실을 배경으로 호흡을 맞추는 장면과 함께, 야외 공간에서 보다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담아내었다. 특히 이번 '봄편'은 규칙적이고 정제된 군의 이미지에 머무르기보다, 봄이라는 계절이 지닌 활력과 개방감, 그리고 음악이 주는 자유로움을 화면 속에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외라는 공간은 계절감을 살리는 무대가 되는 동시에, 군과 국민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한층 부드럽게 이어준다. 이번 영상이 담고자 하는 핵심은 '화합'이다. 각자의 소리와 역할이 모여 하나의 곡을 이루듯, 이번 뮤직비디오 역시 함께 호흡하고 서로를 채워 가는 모습에 주목한다. 멤버 간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어우러짐,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장면들은 군 생활 속 전우애와 공동체의 의미를 은은하게 비춰준다. 이전 아미플리가 보여줬던 밝고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봄의 정서와 관계의 온도를 담아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아미플리-봄편'은 장병들에게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활력소로, 국민에게는 육군의 또 다른 콘텐츠를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은 설명보다 빠르게 마음에 닿고, 진심이 담긴 장면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짧은 영상 한 편이지만, 그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장병들을 향한 응원과 함께, 더 친근하고 따뜻한 육군의 모습을 담았다.

일병 김정우



MINI INTERVIEW

'아미플리-봄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터뷰이 전봉욱 사무관(뉴미디어협력담당), 이형훈 감독

Q 촬영 장소를 부대가 아닌 야외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은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지닌 자유로운 감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규칙적이고 정돈된 부대 내 공간보다 공원과 같은 야외가 봄의 활기와 개방감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봄편'은 규율보다 자유로움, 정적인 분위기보다 생동감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Q 이번 뮤직비디오가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나요?

봄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멤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장병들에게는 작은 사기진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야외에서 민간과 자연스럽게 맞는 장면은 육군을 보다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느끼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이번 뮤직비디오의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봄의 깊이'입니다. 단순히 밝고 경쾌한 화면을 넘어, 계절의 결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담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멤버들 사이의 유대감과 관계의 온기도 함께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상병 김유겸



Q 영상에서 가장 담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화합입니다. 밴드는 각 파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쳐 주며 하나의 음악을 완성합니다. 이번 영상도 각자의 개성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조화, 그리고 소통의 순간들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Q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아미플리-봄편'을 보며 봄을 마음껏 느끼셨으면 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지치고 바쁜 병영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봉욱 사무관



미래 기동 플랫폼, 자율 무인 체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30년 후 전장의 해답을 찾아가다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자율시스템과 대령 원성훈, 소령 여현구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이하 미래연)는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일류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육군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1개실 7개과로 구성된 미래연 가운데에서도 미래자율시스템과는 기술기획 업무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자율 시스템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기획 전반에 걸쳐 육군의 기술 관련 정책과 R&D 관련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글 | 이지연 작가 | 이미지 | 미래자율시스템과 제공

야전과 기술을 잇는 징검다리

미래연 미래자율시스템과는 원성훈 대령을 필두로 이공학 석·박사 장교 8명과 군사과학기술연구병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밀도 있게 모여 있어 국내 연구기관과 견줄만하다는 자부심도 크다. 미래자율시스템과는 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R&D 과제, 관련 정책 분야에서 미래연 의견 종합 및 유관부서와 협업 등을 통해 육군의 의견을 개진한다. 연구 방향은 미래 전장에서 첨단장비로 더 강해진 전투원과 무인차량·로봇·드론 등이 하나의 팀을 이룬 유무인복합체계로써 유기적으로 싸우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첨단기동기술분야'에서는 미래 전투원의 능력을 강화하는 개인전투체계, 지상체계·항공체계 등 기동 플랫폼과 무인체계의 유무인 복합 운용(MUM-T),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잇는 연결 구조(Architecture)를 연구한다. '드론봇 기술분야'에서는 정찰·공격·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과 로봇 연구, 이들이 협업하는 군집 운용 관련 기술도 함께 다루고 있다.

미래자율시스템과의 역할은 야전의 문제를 기술로 번역하고, 기술을 다시 전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크게 기술기획, FDL(Feasibility Demonstration Lab)의 기술 적용성 검증,

운용개념 엔지니어링이라는 세 축으로 구현된다. 미래연 핵심업무인 기술기획은 필요한 기술을 찾고, 그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기술동향 지식 축적, 기술과제 제안, 과제관리로 이뤄진다. 기술동향 지식 축적은 야전과 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매년 전·후반기 현장 중심의 기술기획을 위해 각급 야전부대를 방문, 현장의 난제를 식별한다. 최근 식별한 대표적 난제는 '드론의 EO·IR 센서로도 수풀에 은폐된 적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KAIST을 지연구소와 가까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산·학·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다.

전장의 난제, 이공학으로 풀어가다

미래자율시스템과 여현구 소령은 "기술기획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기술과제 제안'은 단순한 기술요구 식별을 넘어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인 연구개발 과제로 구현하는 과정"이라며 "매년 관련 연구개발 기관의 과제 수요 조사에 맞춰 수십 건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인 '공중침투용 AI 사족 보행 트랜스포머 로봇'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KAIST와 협업해 제안한 이 과제는 현재 야전에 전력화 중인 사족 보행 로봇을 항공기로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착용한 로봇을 투하하면 로봇은 센서 정보를 활용해 강하지점을 찾고 로봇팔로 낙하산 줄을 조종, 목표지점에 착지한다. 이후 다시 사족 보행 형태로 변신·기동함으로써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전투체계 관련 민군기술협력 과제로는 밴드형 뇌 혈류 센서(fNIRS)와 AI 기반 뉴로피드백 기술을 결합한 인지강화 시스템을 제안했다. 해당 기술은 전투원의 인지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유지 및 회복시키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의 새로운 전투지원 개념을 제시한다.

'기술과제 관리'는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공학적 접근을 통해 기술과 작전개념을 같은 축으로 정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유무인복합체계 운용을 위한 전장상황인식 및 지능형 자율판단 공통 아키텍처 개발' 과제에서는 전장 상황 인식이 임무변수(METT+TC)의 틀에 의해 분석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고, 이러한 관점이 현재 적극 반영되고 있다.

'FDL(Feasibility Demonstration Lab)'은 미래자율시스템과가 정의한 개념으로 전장의 난제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신속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실 개념이다. FDL은 전장에서

도출된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공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빠르게 실험하고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현 가능한 개념은 후속 연구개발 과제로 연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선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한다. FDL을 통해 전장의 난제를 먼저 찾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이공학적으로 연구해 활용성을 증명한다. 이후 증명된 능력은 기술과제 제안으로 이어져 향후 육군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결된다.

징검다리에서 튼튼한 철교로!

미래자율시스템과는 R&D 과제를 제안하고 제안된 과제를 기획하며, 진행되는 과제를 관리한다. 이 단계에서 새로운 체계가 어떤 전장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운용되는지를 공학적으로 정의하고, 필요한 성능을 도출하는 일이 바로 '운용개념 엔지니어링'이다. 쉽게 말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다. 기술에서 정량화된 성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운용개념 또한 정량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무공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한 개념 서술이 아니라 전투수행 방식을 모델링하고, 이를 요구 성능으로 환산하는 정교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임무에 대해 투입되는 무인체계의 수량과 역할은 감시정찰, 기동능력, 화력 등 단일적인 능력으로부터 임무 성공률, 전투원 생존성, 인지부하 등 임무수행에 의한 종합적 능력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최적화 문제로 접근된다. 특히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는 이 과정에서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김예지 소령은 "미래 전장은 인간이 기계를 단순히 조종하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는 자율체계와 협업하는 구조로 진화할 것"이라며 "전투원의 인지 상태에 따라 자율체계의 개입수준을 조절하는 '인식형 자율시스템'이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래자율시스템과는 현재의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해 개념·기술·전력화를 연결하는 통합 구조를 구축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 R&D의 최전선에서 야전과 기술 현장의 난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FDL, 공학적 운용개념, 기술과제 제안을 통해 전력화 가능한 기술로 현실화하는 데 연구방향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육군 구성원들에게 더욱 강해진 개인전투체계와 지상체계, 항공체계, 무인체계, 그리고 이들을 잇는 융합체계를 제공할 청사진을 그리며 전투원 곁에 선 공학자의 시선으로 오늘도 30년 후 전장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서울 사수의 최전선, 자유와 평화의 이정표

전쟁의 기억과 평화의 길목, 경기도 파주

임진강을 품은 파주는 예로부터 남북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6·25전쟁 당시 서울 사수의 운명을 쥔 '문산-서울 축선'의 핵심 길목이었다. 그 정점인 1951년 4월, 설마리전투에서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가 압도적인 중공군 병력과 맞서 3일간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서울 방어선을 재구축하는 결정적 초석이 되었고, 오늘날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파주는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글 | 송지유 작가 | 사진 | 원정연 사무관

설마리 고지에 새긴 글로스터의 전설

1951년 4월, 중공군 70만 병력이 투입된 '춘계 공세'로 전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서울 재탈환을 목표로 한 적의 서슬 퍼런 칼끝은 서울로 가는 최단 루트, 임진강 방어선으로 향했다. 당시 이 지역은 영국·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포함된 영국군 제29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22일 밤, 강변 초소를 지키던 29사단 산하 글로스터 연대 제11대대와 제170박격포대 일부 병력(이하 글로스터 대대), 총 662명 앞에 중공군 약 3만 명이 나타났다. 순식간에 포위된 글로스터 대대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설마리 계곡을 따라 후퇴했다. 마침내 도달한 235고지, 지금의 글로스터 고지에 도달한 대대는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23일, 적은 인해전술로 압박해왔고 대대는 탄약과 식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간신히 저항을 이어갔다. 공중 투하된 보급품마저 적진으로 흩어졌고, 지원에 나선 연합군 전력도 적의 저지로 무산됐다. 24일에는 아군 전차와 필리핀 대대가 투입됐으나, 좁은 협곡에서 선두 전차가 격파되며 대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25일 아침, UN 사령부는 방어선 철수 및 재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대대장 칸 중령은 부상병 50여명과 군종 신부, 의료진과 함께 고지에 남고, 나머지 병력에게는 각개 탈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북쪽으로 우회한 D중대만 극적으로 생환했을 뿐, 남쪽으로 향한 대부분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최종 생환자는 단 67명, 대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목숨을 건 3일간의 저항은 전선의 흐름을 바꾸었다. 중공군의 진격은 지연되었고, 유엔군은 서울 방어선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이들이 'The Glorious Glosters(영광스러운 글로스터)'라 칭송되는 이유다.

설마리전투는 임진강 전투, 글로스터 고지 전투로도 불리며, 오늘날 설마리 235고지는 '글로스터 고지'로 그 일대 도로는 '글로스터 길'로 남아 있다. 격전의 흔적 위에 남은 이름들은 자유의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 지금도 파주의 바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01 글로스터대대를 기리는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영국군 설마리전투 추모공원'

설마리전투에서 산화한 영국군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고자 1957년 6월 29일 전투 지역에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를 건립했다. 돌을 쌓아 올린 형태의 전투비는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전투비를 중심으로 조성된 영국군 설마리전투 추모공원은 2014년에 문을 열었으며, 글로스터 연대의 상징인 베레모 조각상과 칸 중령이 포로 시절 돌로 깎아 만든 십자가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매년 4월 말, 이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0-2(전투비), 112-1(추모공원)



02 감악산 계곡을 잇는 출렁다리 '글로스터 영웅의 다리'

감악산(해발 675m)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45m, 길이 150m의 산악 현수교. 공식 명칭 '감악산 출렁다리'에, 설마리전투에서 압도적인 적군에 맞서 고지를 사수했던 글로스터 대대의 공적을 기리는 뜻에서 '글로스터 영웅의 다리(Gloster Hero's Bridge)'라는 이름이 더해졌다. 전투가 벌어졌던 지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걸을 때마다 발밑이 출렁이는 느낌이 들어 아찔함을 느끼게 하는 관광명소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38

03 호국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임진각 보훈단지'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위치한 임진각 관광지는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다. 관광지 내에 위치한 보훈단지는 6·25전쟁 참전기념비,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기념비 등을 비롯해 전몰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는 다양한 기념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추모의 문'을 지나 마주하는 수많은 참전비는 방문객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운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등용문 시즌3

The Standard : 기준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교범이고, 우리가 가르친다”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 부사관 교육생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며,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해 최정에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바로 훈련부사관입니다.
‘등용문 시즌3’는 신병과 부사관 후보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최정에 훈련부사관이 되기 위해
16주간의 혹독한 교육과정을 견뎌내는 교육생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되기 위해 체력, 전투기술, 제식, 리더십, 훈육, 지도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15명의 훈련부사관 교육생들의 모습을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육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부사관학교 #다큐 #army #육군



호시탐탐

전출 보내주세요

feat. 제51보병사단



매일 아침 7시, 다른 부대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땀다. 비룡여단의 뜨거운 아침 체력단련.
“그냥 하는 겁니다.” “15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격.
아니... 사격장까지 걸어간다고요?
“아 저희는 실내 사격장이 있습니다.” “주 1~2회는 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체력단련과 사격.
자네.. 강해지고 싶나?
전출 보내주세요.

#육군 #army #군대 #korea #roka



『새로운 질서 - AI 이후의 생존 전략』

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 소령 김원식

AI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새로운 질서 - AI 이후의 생존 전략』은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국가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룬다. AI 시대에는 속도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은 변화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통찰서이다.

글 | 원정연 사무관 사진 | 대위 송나은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되면 되게하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흑표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김원식 소령입니다. 현재 부대 내 독서모임을 운영하며 장병들이 책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미오브박스'를 통해 장병 여러분께 의미 있는 도서를 소개하고, 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며 더 단단한 육군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Q. 자신의 강점을 알려주세요.

저는 독서를 매개로 장병들과 소통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 내 독서모임을 운영하며 장병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환경을 만들어왔고, 이를 장병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이고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고 확신합니다. 또한,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독서를 실천 가능한 형태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행력 역시 저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장병들의 성장을 돕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Q.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헨리 포드입니다. 그는 산업의 흐름을 바꾼 혁신가이기도 하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로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허름한 차림을 한 노인이 길가의 고장난 차량을 고쳐낸 뒤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라고 말한 일화는 제게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과 실력, 그리고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군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말과 형식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책임감과 진정성이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본질에 충실하며 신뢰로 평가받는 군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내 인생의 책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헨리 키신저의 『새로운 질서 - AI 이후의 생존 전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AI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사고방식과 국가의 질서, 미래 전쟁의 양상까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다가온 점은 앞으로의 미래에는 능력이나 정보의 양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바르게 활용하며
스스로의 기준을
지켜나가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질서
헨리 키신저, 에릭 슈미트,
크레이그 먼디 지음 /
이현 번역 / 월북

군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조직인 만큼, 기술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되물게 한 의미 있는 한 권이었습니다.

Q.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는 번곡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AI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공감하는 한편,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이며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AI의 모습이 결코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이후 시대의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성찰하고,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책은 장병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묻는 의미 있는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Q. 이 책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AI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판단과 책임의 영역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통찰이었습니다. 특히 책에서 언급된 '제네시스(GENESIS)' 미션은 AI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AI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그 판단의 기준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음을 강조합니다. 군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는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기술의 시대일수록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Q. 이 책에서 나의 병영생활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나요?

이 책은 AI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병영생활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단'과 '책임'의 중요성은 실제 부대 환경에 적용해 볼수록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대에서는 훈련과 일상적인 임무 수행 중에도 수많은 판단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며, 제한된 시간과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는 속도를 우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판단의 '속도'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실제 병영에서는 작은 판단 하나가 안전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른 판단'보다 '책임질 수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과 정보에 의존하는 환경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이러한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은 장병 개인의 성장과 부대 전투력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 육군 장병과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AI의 발달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이 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가능성을 상상하고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AI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활용은 선택이 아닌 준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앞으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육군에 하실 말씀은?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본질과 기준을 지키는 군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AI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전장과 일상이 빠르게 바뀌더라도 군인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언제나 제한된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육군 가치관(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바르게 활용하며 스스로의 기준을 지켜나가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육군 장병 여러분이, 책임 있는 판단과 올바른 기준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육군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육·군·협·회

육군협회, KADEX 2026 언론 설명회 개최



육군협회는 3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 언론 설명회’를 열고 전시회 추진 방향과 주요 계획을 소개했다. KADEX 2026은 ‘피지컬 AI, 전장을 지배하다(Physical AI, Dominate the Battlefield)’를 주제로 오는 10월 개최되며, 자율 및 유·무인 복합체계, 초연결 네트워크와 지능형 지휘통제, 장거리 정밀타격, 드론-대드론 체계 등을 핵심 테마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시 구성, 현실과 가상세계의 융·복합, 세미나와 전시의 유기적 연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육군과 국내외 방산기업, 동맹·협력국이 함께 미래 육군의 전투 양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번 KADEX 2026은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 기업은 국내 387개, 해외 63개 등 총 450개로 확대됐고, 부스도 2,032개로 늘어났다. 해외 대표단 역시 50개국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며, 미국·사우디아라비아·인도 등 10개국 참가가 확정됐다. 협회는 4만 2,000㎡ 규모의 전시장을 전장 기능 중심으로 구성해 관람 편의를 높이고, 과학기술강군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재·향·군·인·회

신상태 향군 회장, 제38대 회장 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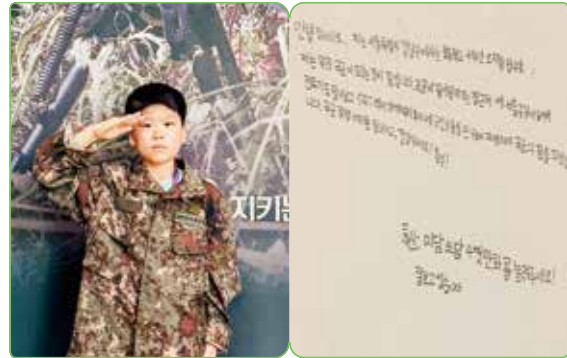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4월 13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82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신상태 현 회장이 제38대 회장으로 재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재적 대의원 378명 중 375명이 참석했다.

총 3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신 회장은 273표(득표율 72.8%)를 얻어 참석 대의원 과반을 넘기며 당선을 확정했다. 향군은 회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지난 4년간 추진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재무 안정성 개선 성과를 거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신 회장은 육군3사관학교 6기로 임관했으며, 서울시 향군회장과 향군 부회장을 역임했다. 당선 인사말에서 그는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하고 내실 있는 향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안보와 보훈’ 아래 1,100만 향군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앞으로 재정 안정화, 제대군인 복지 및 취업센터 구축, 조직 활성화, 안보·보훈단체로서의 위상 제고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향군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4월 독자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오지황입니다. 제 꿈은 멋진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 근처에 서울공항이 있어서 전투기를 자주 볼 수 있었고, SRT역이 가까워 휴가 나온 군인 아저씨들도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군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충성!

- 오지황 어린이



육군 4월호를 읽으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미래 전장을 이끌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새삼 실감했어요. K-CEV와 드론, 원격무기체계가 정찰부터 공격까지 연계해 수행하고, 병력은 후방에서 지휘-통제를 맡는 방식에서 첨단 군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특히 위험한 임무를 무인체계가 먼저 맡아 장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미래 전쟁이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지속적인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류선숙



아흔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지금은 편찮으시지만, 여전히 책 읽기를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육군』 소식지를 늘 기다리십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눈도 많이 어두워지셨지만, 소식지를 전해드리면 꼭 두 손으로 받아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는 모습에 저도 함께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학군장교 임관식과 Army TIGER, AI 기반 전투체계 관련 내용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이 이제는 제 아들 또래처럼 느껴져 더욱 고맙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와 함께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엄정민



군용 차량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이번 호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사는 무척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시범 운용 중인 이 장비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동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순찰은 물론 보급과 정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범 운용을 마치고 각 부대에 배치되어 현장에서 그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 김동석

제16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예술을 통한 국민과 장병의 호국안보의지 함양

호국미술대전

2026. 3.23. Mon – 6.18. Thu

세부접수방법

호국미술대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https://mp.mil.kr/hoguk/index.do>

안내전화 문의 | 이메일 문의
 070-8648-3450 | hoguk@art-n.co.kr

출품원서는 호국미술대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최·주관 육군본부 ·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조직위원회 후원

5월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의견을 우편 또는 이메일(육군지 편집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기고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2026년 5월 15일까지,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바랍니다.)


4월 육군 독자의견 당첨자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호
 육군본부 정훈실 육군지 담당자 앞
 육군지 편집실 Email: 69oon@naver.com

오지황 어린이, 류선숙
 엄정민, 김동석

구독 신청 및 해지, 주소변경은
 우편발송업체로 연락바랍니다.

070-4109-5183
zerodm@naver.com

국가방위의 중심군 

육군



YOUTUBE



FACEBOOK



INSTAGRAM



NAVER
BLOG



E-Book